

# 이젠 '지식'이 국가흥망을 좌우한다

## 지식사회의 새 경영이론 제시한 책들 쏟아져

인터넷과 초고속 전산망, 멀티미디어로 대변되던 정보화사회는 고도의 지식사회로 가는 징검다리였다.

최근 선보인 경영학 관련서들은 바로 이 시대에 지식혁명이라는 제5의 물결이 전세계의 바다에서 거세게 넘실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책은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이 농경사회, 산업사회, 글로벌산업사회, 정보화사회에 이어 '지식사회'로 바뀌고 있음에 주목한다. 지식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조직, 국가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고 공유하며 활용하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린다는 새로운 메시지다.

### 30대 독자층 끌어들이

서점가에는 《지식혁명보고서》, 《지식경영》, 《지식창조의 경영》, 《지적자본》, 《지식자본》(애니 브루킹, 사람과책), 《지식경제 시대의 존재혁명》 등의 경영학 서적들이 '지식사회'의 새로운 경영철학을 펼쳐보이며 30대 독자층을 강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21세기 북스에서는 《창의력경영》(클레이카)이라는 책도 곧 펴낼 예정이다.

이들 책에서 말하는 지식은 교과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용적 지식과 현장경험도 지식의 한 부분이며 더 고차원적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연계되어 있는 상태가 '지식'이다.

당연히 지식사회에서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구분이 없어지고, 일을 대하는 태도, 업무처리능력 등에 따라서 지식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사회의 지식인을 '골든 칼라'라 한다.

《지식혁명보고서》(매경지식프로젝트팀, 매일경제)는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이하는 데 일천한 지식 수준이 큰 몫을 담당했다고 지적한다.

그 증거자료로 저자들은 98년 3월에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와 97년 10월에 발표된 부즈 앨런 & 해밀턴 한국 보고서를 제시한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 생산성이 은행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친다. 즉 기업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할 만큼의 이윤도 창출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지식의 격차가 구체적으로 한국 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최근 선보인 경영학 관련서들은 지식혁명이라는 제5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음을 예감케 한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글로벌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지나 이제 '지식사회'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사회엔 어떤 경영관이 필요한가. 이들 책이 간파하고 있는 내용이다.**



주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지식격차가 생산성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기업의 능력을 저하시켰다는 말이다. 한국 보고서에서는 그 대안으로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와 지식 격차를 줄이라고 단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불행하게도 한국이 얼마나 거대한 지식열등국인가를 보여주는 데서 시작한다.

지식사회에 대한 조명이 경영학 관련서적에서 돌출된 데는 최근까지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던 리엔지니어링의 퇴조(혹은 단점의 표출)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듯하다. 리엔지니어링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다시 사람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지식경영》(노나가 이쿠지로, 21세기 북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저자 노나가 이쿠지로의 주장은, "기업에서는 조직의 지적 능력과 이를 통해 창조되는 지식이 불가피하다. 즉 지적 경영이 요구된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저자는 우선 리엔지니어링과 지적경영의 차이를 설명한다. 리엔지니어링은 업무 프로세스가 중심과제다. 따라서 조직의 창조성이 아니라 사전에 규정할 수 있는 결과를 축으로 삼고 있다. 리엔지니어링은 본질적으로 '수단'에 불과하므로, '낮은 비용, 저가격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엄격하게 조정되는 업무로 사원들은 피폐해지고, 창조적 개발 욕구가 억제, 해고의 불안으로 혁신적 행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은 항상 새로

운 지식을 획득하고 창조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한다.

각종 사례와 도표를 이용해 독자들로부터 금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노나가 이쿠지로의 또다른 책 《지식창조의 경영》(21세기북스)과 함께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르다.

### 개발 위한 지식에 주목

지식사회가 인간이 천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시대임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조직이나

개인이 각자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존재혁명'을 성취해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존재혁명》(하인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틀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를 밝힌다.

이 책은 인프라의 특징과 함께 구성 요소, 운영 방안에 대해 다루고, 이어서 2015년이라는 미래사회의 전반에 대한 추세를 예측한다. 또 개인과 집단, 정부가 지식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데, "상품경쟁에서 지식경쟁으로 바뀐다"는 게 핵심.

세종서적에서 펴낸 《지적자본》(레이프 에드빈슨, 마이클 멀론 공저)은 '지식=자산'이라는 등식을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이제 자산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하며 인간의 지적 능력이 자산임을 부각시킨다. 인텔사와 MS사의 가치는 건물이나 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 즉 지적 자본에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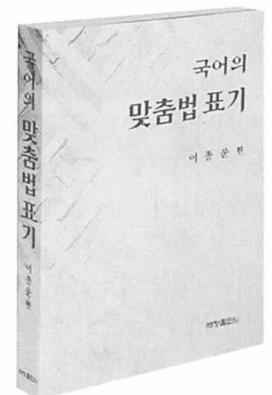
세계은행은 98년 세계개발보고서의 주제를 '개발을 위한 지식'으로 선정했다. 지식이 한 회사의 생산성은 물론 국가의 흥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표어가 될 법하다. 지금 서점에 진열된 지식 관련 경영서들이 놓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성수>

### 화제의 책

## 우리말 바르게 쓰기의 지침

이종운 엮음 《국어의 맞춤법 표기》

글을 쓰고 편집하는 사람은 늘 글의 통일된 표기에 힘쓰지만, 막상 규정대로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 책은 지난 88년 고시된 '한글맞춤법' 규정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한 해설서다. 국어 맞춤법 가운데 헛갈리거나 어려운 단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뽑아 필요한 문법사항을 설명하고 출처를 밝혔다. 예컨대 둘 사이를 나타내는 접미사 -간(間)은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나 의존명사로 인정되는 '문명인 간', '이렇듯 저렇듯 간'은 띄어쓰고, <고등국어>



에는 '민족 간', '비몽사몽 간' 띄고 있음을 밝혀놓았다.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수록했으며 이용하기 쉽게 찾아보기도 실었다.

세창출판사/B5변형/532면/15,000원